

온라인 활용 강좌 콘텐츠 개발 지원서비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6월부터 E-learning을 이용하는 학내 교수님들을 위해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의 실시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 자료 제작부터 수업 운영까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했던 교수님들의 기술적 수고를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서비스 실시의 배경

모학과 김 교수는 평소 학생들의 학습을 돋기 위해 매주 꼼꼼하게 수업자료를 준비하는 등 강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전산원에서 제공하는 수업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수업게시판으로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양과 유형에 제한을 느껴 올해부터는 ‘웹클래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싶은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좋은 수업자료를 개발하자면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교안을 작성하고 또 학습에 도움이 될만한 여러 가지 이미지 및 영상 자료를 직접 제작하거나 수집해서 이를 수업 목적에 맞게 보정하고 웹 문서로 만드는 등 여러 절차와 기술이 요구되지만 학내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아도 이를 도와주는 곳이 없다.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조교라도 찾아보려 하지만 그런 능력을 가진 조교를 찾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프로그래밍 기술이 요구되는 멀티미디어 자료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자료를 제작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포기했다. 결국 김 교수도 강의내용을 웹으

로 변형하는 작업에 시간과 노력을 쏟기보다는 강의내용의 충실에 힘쓰기로 마음을 먹고 웹클래스를 자료제출이나 공지사항 전달 및 학생간 토론 활동에만 활용하고 있다.

컴퓨터와 웹의 가능성을 이용해 멋진 수업자료를 개발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교수님이라면 김 교수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지레 겁을 먹고 시도조차 못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말로만 설명하던 상황들을 실제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강의시간에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는 디지털 수업자료 제작 지원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대학과 교육이 급속하게 디지털화되고 있지만, 기존 인력을 디지털 미디어 제작 인력으로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고자 시도하는 교수들은 본인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만 했고, 그 결과 학내 멀티미디어 수업자료의 개발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교수님들의 디지털 수업 자료 구축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하던 중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나는 중앙

도서관과 연계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이를 디지털화하고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직접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도서관과의 연계 방안은 소장 가치가 있는 자료를 발굴하여 구축한다는 도서관 사업의 성격상 콘텐츠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별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학내 교수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자료, 이미지 자료, 영상 자료, 문서 자료 등을 디지털화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준비된 수업자료를 원하는 학습순서나 학습활동이 있는 수업 패키지로 통합해 이를 웹 문서로 개발해준다. 또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촬영하거나 제작해 디지털 자료로 만든다. 이 서비스는 현재 기술지원 조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교수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학내 교수들이 강의 내용에 전념하면서 웹 보조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온라인 강좌의 콘텐츠 유형

가. 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콘텐츠
중앙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콘텐츠는 우리 대학에서 발간하거나 보유한 자료로서, 학술적인 보전 가치가 있고 저작권에 저촉을 받지 않는 자료들에 국한된다. 교수는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 할 수 있다.

소장자료 유형	개발자료 유형
Full Text	뷰어를 활용하는 디지털 자료로의 전환
이미지	디지털 이미지
사진	디지털 사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디지털 슬라이드 및 파워포인트 자료
오디오 자료	디지털 음성 자료
비디오 자료	디지털 영상 자료

〈표 1〉 중앙도서관에서 개발 지원하는 자료 유형

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강좌를 위한 콘텐츠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작 지원하는 콘텐츠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통합문서(웹용): 일반적인 웹 페이지로서 5가지 멀티미디어 요소(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 애니메이션)를 모두 또는 두세 가지 이상 포함한 통합문서를 제작한다.
- 통합문서(CD-title): 통합문서(웹용)와 유형이 비슷하나 웹용은 웹상(브라우저)에서 활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데 반해,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CD-title의 형태로 제작한다.
- HTML: 통합문서(웹용)의 멀티미디어 요소 중 일부 요소만을 비교적 간편히 개발해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 Powerpoint: 일반적인 발표용 파워 포인트가 아닌 개별학습 자료로 이용하거나, 수업시간 내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다. 텍스트, 도표 및 이미지, 사운드 삽입이 가능하다.

- 이미지(웹용): 웹상에서 활용될 이미지를 보정하거나 변형한다.
-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역동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변형한다.
- 영상: 수업시간에 강의를 촬영하거나 기존 영상 자료의 편집을 지원한다.
- 사운드: ‘영상’ 서비스 마찬가지로 수업시간에 강의를 녹음하거나 기존의 사운드 자료를 편집한다.

3. 서비스의 기대효과

6월부터 강좌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교수님들의 수업 자료 제작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동안 기술부족으로 인해 웹 기반 수업 자료 제작이 어려웠던 교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기술적인 부분은

웹 개발자에게 맡기고, 교수들은 실제적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여 좋은 강의를 하는 데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을 보충하거나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게 되면 우선 학생들은 강의시간에서만 볼 수 있었던 교수들을 시공간을 초월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또한 강의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교수들의 수업자료를 중앙도서관의 웹 강의자료로 구축하게 되면 더욱 많은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서비스는 모두 궁극적으로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서비스가 개시되는 대로 다음호 계간지와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C**

교육매체지원부 adela3@dreamwiz.com

개발 자료 유형	내용
통합문서 (웹용)	텍스트+이미지+동영상+ 사운드+애니메이션 삽입
통합문서 (CD-title용)	텍스트+이미지+동영상+ 사운드+애니메이션 삽입
HTML	단순 텍스트 삽입
	이미지 삽입
	동영상 삽입
	사운드 삽입
	애니메이션 삽입
Powerpoint	단순 텍스트 삽입
	도표 및 이미지 삽입
	사운드 삽입
	이미지(웹용)
	보정 및 변형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및 변형
	촬영
	편집
사운드	녹음
	편집

〈표 2〉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개발 지원할 자료 유형 및 내용